韓國學校保健學會誌 第16卷 第1號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Vol. 16, No. 1, 135~148, June 2003

남·녀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 역할 정체감 비교연구

원 경 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gree Satisfaction of Body Image and Sex-role Identity Between Primary School Boys and Girls

Won, Kyung Hee*

Kyunggii Do education hall, Department of the whole life physical education, School Health Divis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image and sex-role identity of primary school boys and girls and to examine their relevance between two sex groups. The data from study would be useful for mapping out some measures for school health education. Two hundred and forty five(245) students of 6th grade from 5 different primary schools in Seoul city and Gyonggi Province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meaningful difference among demographic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boys and girls has been shown to be in religion(x^2=6.705, p=.044), the order of siblings(x^2=7.455, p=.024), mother's academic career (x^2=6.705, p=.035) and the levels of living (x^2=4.108, p=.043).

In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sex-role identity, boys and girls were revealed as : undifferentiated 41.0%, 36.4%; as androgynous 24.8%, 25.8% respectively. Boys have masculinity (23.1%), on the other hand girls more feminity (22.7%)

The meaningful difference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image depends on father's ag(t=3.029,p=.050), mother's occupation(t=2.878,p=.023), home atmosphere(t=9.056,p=.000), level of livin(t=2.216,p=.028), academic achievements(t=4.580,p=.011).

Masculine sex-role identity has shown its meaningful difference in mother's academic background(t=7.042,p=.001), academic achievements(t=14.963,p=.000).

Feminine sex-role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s meaningful difference in gender (t=2.683,p=.008), the order of siblings(t=3.019,p=0.51), father's academic career(t=5.558,p=.004)mother's academic background(t=7.676,p=.001),mother's occupation (t=3.405,p=.010),home atmosphere(t=4.492,p =.012),school performance(t=16.774,p=.000).

Sex-role identity influences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image as the relation bet we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image and sex-role identity is pro correlative.

Key Words : sex-role identity, body image, degree of satisfactio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자신의 키와 몸무게 등 체형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인제대 상계백병원 '시내 초중고교생의 체형만족도 설문조사', 2001), 또한 한국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미국사회의 "루키즘(Lookism : 외모지상주의)"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상(Body image)은 사회적 거울이며 늘 타인과의 비교에서 얻어진다.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것은 외모가 사회적으로 이성에게 받아들여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자신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왜곡된 신체상을 지니고 있을 때 자신의 신체를 결점투성이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불신하고 무능력하게 생각하며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사춘기에 이르면 용모에 따라 이성과의 교제에도 큰 차가 생긴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이성의 외모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Sprecher, 1989), 성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매력이 이성간의 친밀도와 만족도를 예언하는 잣대가 된다. (지태옥, 1997)

Dion. Bercheid & Walster(1982)는 '미(美)'라는 것은 선한 것이며 추한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고정관념과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재미있고, 강하고,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이고, 안정적인 특성,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Mischel, 1986),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그가 남자일 때는 더 남성적이며, 여성일 때는 더 여성적일 것이란 고정관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Nakdimen, 1984)

이러한 외모의 가장 근본적인 상징은 성(gender)이다(강혜원, 1984). 성역할이란 한 개인의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의 성정체감과 관련된 감정, 태도, 행위 등의 표현양식으로, 이러한 성 유형화는 남녀를 구분하여 스스로 자신의 성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내면적인 느낌으로서의 성정체성(genderidentity)과 같은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개념은 미에 대한 정의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외모나 체형에 따라 신체나 외모에 대한 만족정도에 관계가 있으며(Freedman, 1984),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개념이나 신체상(Body Image)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다.

학령기 아동의 성역할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 가치관이나 놀이 등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가정과 또래집단에서 유지되고 있다. 과거 여아들은 성인의 가치와 관습을 따르는 또래집단을 본받아서 남아에 비해 부모가 방향 지운 대로 따르는 경향이 컸으며, 가족과 또래 집단을 모두 동일시하여 성역할 발달의 연속성을 보인다. 반면 남아의 또래 문화는 성인들이 주장하는 가치와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들은 싫던 좋던 간에 다양한 성인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현저하게 성역할의 불연속성을 보인다(Benedict, 1983)

최근에 성역할에 관한 내용은 양성성(androgyny),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졌고, 한 개인에게 그 성에 적절하고 전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곧, 그 반대 성의 특질이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극이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혹은 모두 낮은 것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성성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으로(Bem, 1972), 자존심이 강하고(Spence 등, 1975 ; 이숙, 1984 ; 이재연, 1983), 다양한 레퍼터리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Kelly 등, 1977)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가 되면 사회적 환경이 확장되고 또래와의 관계가 발달하므로 자신의 신체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김경희, 1989). 이같이 자신을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존재

(Norris, 1970)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자신을 대상화하여 지각하는 '거울에 비친 자기'(looking-glass self)의 형상을 의미하는데, 아동의 심신발달과 더불어 형성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된다(이분옥, 1999).

Roberta Simons와 Dale Blyth(1987)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초기에서 중기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신체상(body image)과 자존심(self-image)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 연구결과 소녀들이 소년들에 비해 체중, 체형, 매력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고 더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6학년 초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사춘기)에는 자신에 대한 감각으로서 적절한 신체상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사춘기 이후의 외모는 거의 성인에 가까우므로 10대에 그릇된 신체상의 형성을 피하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학업이나 직무에서 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수준도 높아지므로(Jasmine & Trygstad, 1979)

이들 청소년들의 성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상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비만, 폭식, 우울(이분옥, 1999; 이수현, 2000; 지태옥, 1997; 황효정, 1999)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첫째,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 및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 및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학생자신과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며, 셋째,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 교사의 교육·상담과 학생의 건강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상자들의 요구에 근거한 학교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을 파악하고 관련성을 검토하여 학교보건교육 대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다.

2. 남·녀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를 비교한다.

3. 남·녀초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비교한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를 파악한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을 파악한다.

6. 남·녀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신체상

신체상이란 자기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신체구조, 기능, 외모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와 느낌에 대한 개인 내적인 경험이다(Stuwart, 1983). 본 연구에서 신체상이란 신체구조, 기능 및 외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정도로서 신체 전반에 대한 신체상(Global Body Image)측정을 위하여 언어의 의미나 가치와 같은 주관적 의미표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Osgood (1952)이 개발한 의미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과 Fitts(1964)가 개발한 Tennessee Self Concept Scale 중에서 신체상과 관련되는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도구 안재현(1996)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이란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의식하고 정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자신이 얼마만큼 전통적인 의미의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차진희(1994).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Bem(1974)의 short form BSRI(Bem Sex Role Inventory)를 Chung(1983)과 김선영(1987)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것을 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의 재학생 중 6학년 249명을 편의표집하여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신체상만족도(global body image)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상만족도 측정도구는 신체전반(global body image)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Osgood(1952)이 개발한 의미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과 Fitts(1964)가 개발한 Tennessee Self Concept Scale 중에서 안재현(1996)이 신체상과 관련되는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했던 것을 본 연구자가 재사용 하였으며, 5단계 Likert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hronbach's Alpha값은 .67로 나타났다.

2) Bem의 성역할 측정도구(Bem Sex Role Inventory; BSRI)

Bem의 성역할 측정도구는 5단계 Likert 평정척도로서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채점방식은 Bem이 추천하는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남성성척도와 여성성척도 문항 각각의 중앙치를 계산하여 피험자를 4집단으로 나누었다. 여성성, 남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성 집단에 포함시켰으며, 이때 양성적 성역할정체감(Androgy nous sex-role identity)이란 한 개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를 통합시켜 상황에 따라서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여성의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성집단에 포함시켰다. 이때 남성적 성역할정체감(Masculine sex-role identity)이란 남성에게 더욱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이다.

두 점수 모두 중앙치 이하이면 미분화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미분화 성역할정체감(Undifferentia ted sex-role identity)이란 한 개인의 정체감에 있어서 전통적인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래의 B.S.R.I는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Bem이 최근에 개발한 Short form B.S.R.I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남성성, 여성성문항 각 10문항과 중성문항 10문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이고, 연구자가 전화로 각 학교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담임교사를 통해 6학년 남·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한 후 회수처리 하였으며, 총 25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율은 100%였다. 그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1부를 제외한 249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로 전산처리 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고 남녀학생의 차이는 χ^2-test로 산출하였다.

(2)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남녀학생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ANOVA, t-test로 검증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과의 남녀학생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와 ANOVA 그리고t-test로 검증 하였다.

(4)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는 피어슨적률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1) 표집대상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 5개교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본 결과의 전국적인 일반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아동의 응답에 의존하므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III. 연구결과

1. 남·녀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비교

남·녀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에서와 같다.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종교(χ^2=4.066, p=.044), 형제서열(χ^2=7.455, p=.024), 모학력(χ^2=6.705, p=.035), 생활수준(χ^2=4.108, p=.0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46.9%), 여(53.1%)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종교의 경우 남녀 공히 종교를 가지고(69.2%, 80.3%) 있는 쪽이 많았으며 여학생(80.3%)이 남학생(69.2%)에 비해 더 많았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쪽은 남학생(30.8%)이 여학생(19.7%)에 비해 더 많았다.

형제서열은 남녀 공히 맏이(47.9%, 62.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간(42.7%, 34.8%), 막내(9.4%, 3.0%)순으로 나타났다. 맏이의 경우 여학생(62.1%)이 남학생(47.9%)에 비해 더 많았고, 중간은 남학생(42.7%)이 여학생(34.8%)에 비해 더 많았다.

부모의 특성으로 모학력의 경우 남학생은 대졸이상(49.1%)이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고졸(56.9%)이 가장 많았고, 생활수준은 남녀 공히 보통(70.9%, 81.8%)이 많았으며, 남학생(29.1%)이 여학생(18.2%)에 비해 잘사는 편이 많았다.

2. 남·녀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 비교

남·녀 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t=2.550, p=.011) '나는 내 몸의 어떤 부분은 좀 달라졌으면 한다'(t=4.464, p=.000) '나는 내 외모에 신경을 쓴다'(t=-5.620, p=.000)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남=4.12, 여=3.71), '나는 내 몸의 어떤 부분은 좀 달라졌으면 한다'(남=3.29, 여=2.38)는 항목에서 여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나는 내 외모에 신경을 쓴다'(남=2.63, 여=3.48)는 항목에서 남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 점수가 높은 순서를 보면 '나는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다'(남=4.62, 여=4.60)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나의 몸은 쓸모가 없다'(남=4.55, 여=4.50)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것은 남학생의 경우 '나는 나의 피부색이 변화되는 것이 싫다'(M=2.28), '나는 나의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M=2.27)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나는 나의 피부색이 변화되는 것이 싫다'(M=2.02)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 점수는 남학생(M=3.55)이 여학생(M=3.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남·녀 초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 비교

남·녀 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비교한 결과는 <표 3>에서와 같다.

성역할정체감의 빈도별 분포에서 전체적으로 미분화(38.6%)가 가장 많고, 다음은 양성성(25.3%), 남성성(18.9%), 여성성(17.3%)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녀 공히 미분화(41.0%, 36.4%), 양성성(24.8%, 25.8%) 순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남학생인 경우 남성성(23.1%)이, 여학생은 여성성(22.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화인 경우 남학생(41.0%)이 여학생(36.4%)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성성은 여학생(25.8%)이 남학생(24.8%)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남·녀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차이검증

N=249

특성	구분	남 (N=117) N(%)	여 (N=132) N(%)	검증결과
종교	유	81(69.2)	106(80.3)	χ^2=4.066
	무	36(30.8)	26(19.7)	p=.044*
형제수 (명)	1	7(6.0)	12(9.1)	χ^2=4.982
	2	92(78.6)	87(65.9)	p=.087
	3	18(15.4)	33(25.0)	
형제서열	맏이	56(47.9)	82(62.1)	χ^2=7.455
	중간	50(42.7)	46(34.8)	p=.024*
	막내	11(9.4)	4(3.0)	
부모생존여부	모두계심	112(95.7)	128(97.0)	χ^2=.275
	편부모	5(4.3)	4(3.0)	p=.600
부연령 (세)	-39	12(10.4)	14(10.9)	χ^2=3.134
	40-49	101(87.8)	107(82.9)	p=.209
	50-	2(1.7)	8(6.2)	
모연령 (세)	-39	49(42.2)	50(38.5)	χ^2=.364
	40-	67(57.8)	80(61.5)	p=.546
	50-	-	-	
부학력	중졸이하	7(6.1)	11(8.5)	χ^2=.656
	고졸	39(34.2)	46(35.7)	p=.720
	대졸이상	68(59.6)	72(55.8)	
모학력	중졸이하	12(10.3)	11(8.5)	χ^2=6.705
	고졸	47(40.5)	74(56.9)	p=.035*
	대졸이상	57(49.1)	45(34.6)	
부직업	단순노동	5(4.3)	5(3.9)	χ^2=5.768
	숙련공	10(8.7)	15(11.6)	p=.329
	판매직	21(18.3)	30(23.3)	
	사무직	56(48.7)	44(34.1)	
	전문직	6(5.2)	10(7.8)	
	기타(무포함)	17(14.8)	25(19.4)	
모직업	무	41(35.3)	50(38.5)	χ^2=4.263
	판매직	22(19.0)	24(18.5)	p=.372
	사무직	26(22.4)	17(13.1)	
	전문직	5(4.3)	7(5.4)	
	기타	22(19.0)	32(24.6)	
집안분위기	엄격	21(17.9)	18(13.6)	χ^2=2.482
	자유로움	83(70.9)	91(68.9)	p=.289
	무관심	13(11.1)	23(17.4)	
생활수준	잘사는편	34(29.1)	24(18.2)	χ^2=4.108
	보통	83(70.9)	108(81.8)	p=.043*
	못사는편	- -	- -	
학교성적	잘하는편	27(23.1)	27(20.5)	χ^2=1.966
	보통	78(66.7)	97(73.5)	p=.374
	못하는편	12(10.3)	8(6.1)	

p<.05

표 2. 남·녀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 차이검증

N=249

항 목	남 (117명)		여 (132명)		t or F	p
	M	SD	M	SD		
1 나는 건강하다.	4.44	.87	4.21	1.01	1.855	.065
2 나의 몸은 매력적이다.	2.58	.98	2.60	.84	- .150	.881
3 나의 모습은 단정하다.	3.47	1.03	3.48	.99	- .115	.908
4 나는 몸이 온통 쑤시고 아프다.	4.21	1.11	3.99	1.20	1.445	.150
5 나는 너무 뚱뚱하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았다.	3.34	1.52	3.67	1.22	-1.871	.063
6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4.12	1.18	3.71	1.33	2.550	.011*
7 나는 내 몸의 어떤 부분은 좀 달라졌으면 한다.	3.29	1.66	2.38	1.56	4.464	.000*
8 나는 성적인 매력이 없는 것 같다.	2.79	1.27	2.77	1.10	.091	.928
9 나는 나의 몸을 잘 돌본다.	3.45	1.24	3.59	1.17	- .904	.367
10 나는 나의 외모에 신경을 쓴다.	2.63	1.20	3.48	1.17	-5.620	.000*
11 나는 잠을 잘 못 잔다.	4.15	1.31	4.03	1.20	.777	.438
12 나는 나의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2.27	1.06	2.48	.98	-1.576	.116
13 나는 나의 몸이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4.29	1.05	4.38	.97	- .689	.492
14 나의 몸은 연약한 편이다.	3.89	1.27	3.89	1.24	- .032	.975
15 나의 몸은 쓸모가 없다.	4.55	.91	4.50	.81	.431	.667
16 나는 몸이 늘 거뜬하지 않다.	3.83	1.18	3.69	1.21	.918	.360
17 나는 기력이 없다.	4.16	1.12	4.00	1.13	1.134	.258
18 나는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다.	4.62	.99	4.60	.93	.209	.835
19 나의 피부색이 변화되는 것이 싫다.	2.28	1.44	2.02	1.36	1.461	.145
20 나는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	2.72	1.50	2.89	1.44	- .944	.346
총 계	3.55	42	3.52	47	.634	.527

* p<.05

표 3. 남·녀초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차이검증

N=249

	남		여		계		검 증 결 과
	N	%	N	%	N	%	
양성성	29	24.8	34	25.8	63	25.3	
남성성	27	23.1	20	15.2	47	18.9	χ^2=7.283
여성성	13	11.1	30	22.7	43	17.3	p=.063
미분화	48	41.0	48	36.4	96	38.6	
계	117	100.0	132	100.0	249	100.0	

* p<.05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별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서와 같다.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에서 남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부연령(t=3.029, p=.050), 모직업(t=2.878,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 차이검증

N=249

특 성	구 분	N	M	SD	t or F	p	DMR
성 별	남	117	3.55	.42	.634	.527	
	여	132	3.52	.47			
종 교	유	187	3.53	.44	-.399	.690	
	무	62	3.55	.46			
형 제 수 (명)	1	19	3.39	.50	2.269	.106	
	2	179	3.57	.45			
	3	51	3.46	.38			
형 제 서 열	맏 이	138	3.57	.48	.775	.462	
	중 간	96	3.49	.40			
	막 내	15	3.53	.36			
부 모 생 존 여 부	모 두 계 심	240	3.53	.44	-.177	.859	
	편 부 모	9	3.56	.45			
부 연 령 (세)	- 39	26	3.44	.45	3.029	.050*	AB
	40 - 49	208	3.56	.44			A
	50 -	10	3.26	.47			AB
모 연 령 (세)	- 39	99	3.54	.46	.178	.859	
	40 -	147	3.53	.43			
	50 -	-	-	-			
부 학 력	중 졸 이 하	18	3.38	.36	2.340	.099	
	고 졸	85	3.49	.40			
	대 졸 이 상	140	3.58	.47			
모 학 력	중 졸 이 하	23	3.42	.32	1.791	.169	
	고 졸	121	3.51	.43			
	대 졸 이 상	102	3.59	.48			
부 직 업	단 순 노 동	10	3.49	.35	.641	.668	
	숙 련 공	25	3.43	.47			
	판 매 직	51	3.58	.46			
	사 무 직	100	3.55	.46			
	전 문 직	16	3.63	.60			
	기 타(무 포함)	42	3.49	.31			
모 직 업	무	91	3.61	.42	2.878	.023*	A
	판 매 직	46	3.57	.43			AB
	사 무 직	43	3.34	.47			B
	전 문 직	12	3.61	.57			A
	기 타	54	3.52	.41			AB
집안 분위기	엄 격	39	3.62	.42	9.056	.000*	A
	자 유 로 움	174	3.57	.43			A
	무 관 심	36	3.26	.42			B
생 활 수 준	잘 사 는 편	58	3.65	.40	2.216	.028*	
	보 통	191	3.50	.45			
	못 사 는 편	-	-	-			
학 교 성 적	잘 하 는 편	54	3.64	.52	4.580	.011*	A
	보 통	175	3.53	.42			A
	못 하 는 편	20	3.30	.26			B

*p=<.05

p=.023), 집안분위기(t=9.056, p=.000), 생활수준(t=2.216, p=.028), 학교성적(t=4.580, p=.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연령이 40-49세군(M=3.56)의 학생이 39세 미만(M=3.44)이거나 50세이상(M=3.26)인 학생에 비해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의 직업이 없거나(M=3.61) 전문직(M=3.61)에 종사하는 학생이 판매직(M=3.57), 사무직(M=3.34)에 종사하는 학생에 비해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분위기의 경우 엄격(M=3.62)하거나 자유로운(M=3.57) 학생이 무관심한(M=3.26) 학생에 비해, 생활수준은 잘사는 편(M=3.65)인 학생이 보통인 학생(M=3.50)에 비해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성적의 경우 공부를 보통(M=3.53) 이상으로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편(M=3.30)인 학생에 비해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연령은 40-49세군, 모의 직업은 없거나 전문직, 집안분위기는 엄격하거나 자유로움, 생활수준은 높을 수록, 학교성적은 보통이상일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성성 성역할정체감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성성 성역할정체감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에서와 같다.

남성성 성역할정체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모학력(t=7.042, p=.001), 학교성적(t=14.963, p=.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이 고졸(M=3.26) 이상인 학생이 중졸이하(M=2.83)인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의 경우 잘하는 편(M=3.57)인 학생이 가장 높았다. 즉 모의 학력은 고졸이상, 공부는 잘 할수록 남성성 성역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성 성역할정체감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을 비교한 결과는 <표 6>에서와 같다.

여성성 성역할정체감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성별(t=-2.683, p=.008), 형제서열(t=3.019, p=.051), 부학력(t=5.558, p=.004), 모학력(t=7.676, p=.001), 모직업(t=3.405, p=.010), 집안분위기(t=4.492, p=.012), 학교성적(t=16.774, p=.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M=3.46)이 남학생(M=3.2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서열의 경우 맏이(M=3.45)가 중간(M=3.28), 막내(M=3.19)에 비해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맏이의 성격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학력은 부의 경우 고졸(M=3.29) 이상인 학생이 중졸이하(M=3.08)인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 역시 고졸(M=3.33) 이상인 학생이 중졸이하(M=3.00)인 학생에 비해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직업의 경우 전문직(M=3.58)인 학생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직업이 없거나(M=3.47), 판매직(M=3.45)인 학생이 사무직(M=3.25)인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집안분위기는 자유로운(M=3.43) 학생이 엄격(M=3.31)하거나 무관심(M=3.12)한 학생에 비해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성적은 잘하는 편(M=3.70), 보통(M=3.31), 못하는 편(M=2.95)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로는 여학생이, 형제서열은 맏이가,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상, 모의 직업은 전문직, 집안 분위기는 자유로울 때, 공부는 잘 할수록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7.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과의 상관관계(r)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과의 상관관계(r)는 <표 7>에서와 같다.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는 순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정체감은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성성 성역할정체감이 높을수록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r=.259, p=.000)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이, 높은 경우에도 신체상만족정도(r=.206, p=.001)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성적 성역할정체감 차이검증

N=249

특 성	구 분	N	M	SD	t or F	p	DMR
성 별	남	117	3.25	.60	.376	.707	
	여	132	3.23	.55			
종 교	유	187	3.22	.54	-.785	.433	
	무	62	3.29	.65			
형 제 수 (명)	1	19	3.08	.63	.814	.444	
	2	179	3.25	.57			
	3	51	3.26	.55			
형 제 서 열	맏이	138	3.24	.58	.017	.984	
	중간	96	3.24	.58			
	막내	15	3.21	.44			
부 모 생 존 여 부	모 두 계 심	240	3.25	.57	.864	.388	
	편 부 모	9	3.08	.53			
부 연 령 (세)	- 39	26	3.15	.71	.461	.631	
	40 - 49	208	3.26	.56			
	50 -	10	3.22	.39			
모 연 령 (세)	- 39	99	3.21	.57	-.668	.505	
	40 49	147	3.26	.58			
	50 -	-	-	-			
부 학 력	중졸이하	18	2.97	.60	2.761	.065	
	고졸	85	3.22	.57			
	대졸이상	140	3.30	.56			
모 학 력	중졸이하	23	2.83	.41	7.042	.001*	A
	고졸	121	3.26	.55			B
	대졸이상	102	3.31	.59			B
부 직 업	단순노동	10	3.13	.39	1.767	.120	
	숙련공	25	3.08	.58			
	판매직	51	3.30	.64			
	사무직	100	3.34	.58			
	전문직	16	3.27	.52			
	기타(무포함)	42	3.09	.48			
모 직 업	무	91	3.28	.56	1.382	.241	
	판매직	46	3.26	.60			
	사무직	43	3.28	.66			
	전문직	12	3.43	.52			
	기타	54	3.10	.50			
집안 분위기	엄격	39	3.37	.59	2.841	.060	
	자유로움	174	3.25	.56			
	무관심	36	3.06	.55			
생 활 수 준	잘사는편	58	3.36	.59	1.905	.058	
	보통	191	3.20	.56			
	못사는편	-	-	-			
학 교 성 적	잘하는편	54	3.57	.58	14.963	.000*	A
	보통	175	3.17	.53			B
	못하는편	20	2.93	.54			C

* $p<.05$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성 성역할정체감

N=249

특성	구분	N	M	SD	t or F	p	DMR
성별	남	117	3.26	.64	-2.683	.008*	
	여	132	3.46	.51			
종교	유	187	3.40	.53	1.555	.121	
	무	62	3.27	.71			
형제수 (명)	1	19	3.37	.35			
	2	179	3.39	.60	.511	.600	
	3	51	3.29	.59			
형제서열	맏이	138	3.45	.55			A
	중간	96	3.28	.63	3.019	.051*	B
	막내	15	3.19	.42			B
부모생존 여부	모두계심	240	3.38	.57	1.287	.199	
	편부모	9	3.12	.81			
부연령 (세)	- 39	26	3.22	.57			
	40 - 49	208	3.40	.57	1.328	.267	
	50 -	10	3.27	.56			
모연령 (세)	- 39	99	3.33	.59			
	40 49	147	3.40	.58	-.838	.403	
	50 -	-	-	-			
부학력	중졸이하	18	3.08	.38			A
	고졸	85	3.29	.56	5.558	.004*	AB
	대졸이상	140	3.47	.58			B
모학력	중졸이하	23	3.00	.49			A
	고졸	121	3.33	.52	7.676	.001*	B
	대졸이상	102	3.50	.63			B
부직업	단순노동	10	3.22	.62			
	숙련공	25	3.48	.40			
	판매직	51	3.37	.66			
	사무직	100	3.40	.57	1.384	.231	
	전문직	16	3.57	.53			
	기타(무포함)	42	3.21	.55			
모직업	무	91	3.47	.60			AB
	판매직	46	3.45	.63			AB
	사무직	43	3.25	.51	3.405	.010*	A
	전문직	12	3.58	.64			B
	기타	54	3.18	.50			A
집안 분위기	엄격	39	3.31	.62			AB
	자유로움	174	3.43	.57	4.492	.012*	B
	무관심	36	3.12	.54			A
생활수준	잘사는편	58	3.47	.63			
	보통	191	3.34	.57	1.501	.135	
	못사는편	-	-	-			
학교성적	잘하는편	54	3.70	.57			A
	보통	175	3.31	.54	16.774	.000*	B
	못하는편	20	2.95	.60			C

* $p<.05$

Ⅳ. 논의 및 제언

1. 논 의

본 연구는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유형별 현황 및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 상담과 교육 및 학생건강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5개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2년 8월에

표 7.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과의 상관관계(r)

N=249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
남성성	.259 (p=.000)
여성성	.206 (p=.001)

*p=<.05

서 10월까지 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종교(χ^2=4.066, p=.044), 형제서열(χ^2=7.455, p=.024), 모학력(χ^2=6.705, p=.035), 생활수준(χ^2=4.108, p=.0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남녀 공히 종교를 가지고(69.2%, 80.3%) 있는 쪽이 많았고 여학생(80.3%)이 남학생(69.2%)에 비해 더 많았다. 이는 일반인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형제서열은 남녀 공히 맏이(47.9%, 62.1%)가 가장 많았고, 맏이의 경우 여학생(62.1%)이, 중간은 남학생(42.7%)이 더 많았다. 모 학력의 경우 남학생은 대졸이상(49.1%)이 많은 반면 여학생은 고졸(56.9%)이 가장 많았고, 생활수준은 남녀 공히 보통(70.9%, 81.8%)이 많았으며, 남학생(29.1%)이 여학생(18.2%)에 비해 잘사는 편이 많았다.

남녀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t=2.550, p=.011)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 점수는 남학생(M=3.55)이 여학생(M=3.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가 더 만족스럽게 나타난 것(Mussa, 1973; 이분옥, 1999)에 비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체상의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김광일, 1983), 차진희(1994)의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은 외모관심요인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백숙희(1998)의 '성형수술 전·후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신체상점수가 남자보다 여자의 신체상점수가 높은 것 역시 일반적으로 여성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에 따라 성형 후 신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의 빈도별 분포에서 전체적으로 미분화(38.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초등학생에 있어 전체적으로 성역할정체감 확립이 덜 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역할정체감 확립이 덜 되어있었으며, 이상적인 성역할 특성인 양성성의 경우 여학생(25.8%)이 남학생(24.8%)보다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조숙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봉희(2001)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분화(45.69%)가 가장 많이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에서 부의 연령은 40-49세군, 모의 직업은 없거나 전문직, 집안분위기는 엄격하거나 자유로움, 생활수준은 높을 수록, 학교성적은 보통이상일 때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연령과 가정의 제반여건, 자아성취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성성 성역할정체감의 경우 모의 학력은 고졸이상, 공부는 잘 할수록 남성성 성역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은 성별로는 여학생이, 형제서열은 맏이가,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상, 모의 직업은 전문직, 집안분위기는 자유로울 때, 공부는 잘 할수록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것은 남녀 성역할정체감 형

성에 있어 모의 영향과 자아성취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성 성역할정체감 형성에 있어 남성성 성역할정체감에 비해 여러 가지 제반요건이 더 갖추어졌을 때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형제서열의 경우 중간, 막내에 비해 맏이에게 많이 나타난 것은 주로 맏이의 성격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 성역할정체감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정체감은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성역할 개념은 신체상만족도와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남녀의 신체상만족도와 성역할정체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신체상의 정립은 초등학생에 있어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성격형성과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 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결과는 남·녀 초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가응답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초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와의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김경희. 아동심리학. 서울:박영사;1989.

김양진, 강혜원.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992;16(2);34-36.

변금순, 민성길, 김선아, 신극선. 미용성형수술과 정신건강. 신경정신의학 1999;94-104.

안재현. 혈액투석 환자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분옥.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따른 절식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수현. 비만 여중생의 신체상 만족도 및 폭식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임소연. 미용성형수술환자와 일반인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현애. 성역할에 따른 중등교사의 여성에 대한 태도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지태옥. 사춘기 여학생들의 자기 신체 지각과 열등감.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조원정, 김진순, 김용순, 서문자, 이광옥, 김윤희, 이숙자. 성교육. 서울: 서울간호사회; 1996.

차진희. 성역할 개념, 의복 성정체감,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사이의 상관연구관계.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황효정. 인지-행동 및 명상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폭식과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Adams, G. R.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 Toward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beauty. Hum Dev, 20, 217-239; 1977.

Bem, S. 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4;42:155-162.

Benedict, R.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ultural conditioning. Psychiatry 1938;1: 161 -167..

Cash, T. F. et al. Body-image survey report: the American shape-up. PsychologyToday 1986; 20:30-44.

Dion, K. K.et al.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 Social Psychology 1982;24:285-290.

Franzoi, S. L. & Herzog, M. E. The body esteem scale: A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86;50(1): 24-31.

Freedman, R. J. Reflections on beauty as it relates

to health in adolescent females. Health Care of the Female Adolescent 1984;9(3):29-45.

Freud Sigmoid/Translated by Toon Riviere. The ego and the id. New York: W, W, NORTON & Co;1961.

Kelly J. A. et al. Socially undesirable sex-correlated characteristic: implications androgyny and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7; 45(6):1185-1186. .

Mischel, W. Introduction to personality(4th ed).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1986.

Nakdimen.K.A. The physio socionomic basis of sexual stereotyping. American Journal of Psy chiatry 1984;141(4):499-503. .

Norris, C.M. The professional nurse and body image, Behavioral concepts & nursing intervent ion,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1970.

Osmond, M. W. and Martin, P. Y. Sex and sexism :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5;37(4):744-758.

Stuwart, A.L., & Brook, R. H. Effects of being overweigh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3;73:171-178.

Qualls, W. J. Household decision behavior: The impact of husbands and wives sex role orient 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87;14(3):264-279.